

시마다 마사히코(島田雅彦) 특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



말과 돈의 미래형(コトバとおカネの未来形)

2011. 5. 26(목) 14:30-16:30

주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120호

언어: 일본어(한일동시통역)

문학, 문화와 경제 그리고 표현활동의 미래

21세기 현대일본의 대표적인 작가에 속하는 시마다 마사히코가 서울에 온다.

『나는 모조인간』, 『악마를 위하여』, 『드림 메신저』, 『피아노선생의 사랑』 등 한국어로 번역된 소설이 14권. 『몽유왕국을 위한 음악』으로 노마 문예 신인상을 받고,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 『마음』(1914)을 패러디한 『피아노선생의 사랑』으로 이즈미 교카 문학상을 수상하여 일본 문단의 극찬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아직 낯선 작가이다.

1961년 동경 출생으로 동경외대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한 시마다 작가는 소설가이면서 영화 <토파스>, <소녀>, <동경 퇴폐>에도 출연한 배우이다.

그런가 하면, 연극과 오페라 연출가로서, 벨칸토 창법으로 멋드러지게 노래하는 성악애호가이자 '상상력을 주지 않는 음악은 듣지 않는' 클래식 매니아로 다재다능한 꽃미남이다.

스스로 '비국민(非国民)' 이라고 칭하며 딱딱하게 굳어져버린 문화를 유머와 유희로 녹여내어 무라카미 하루키에 길들여진 한국독자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작가로 주목해도 좋을 것이다.

데뷔작 『부드러운 좌익을 위한 희곡』이 말해주듯이 좌파를 표방하며 일본사회에 날카로운 예감을 세우는 '지성인' 시마다 마사히코가 『말과 돈의 미래형』이라는 주제로 자본의 논리에 눈이 멀어버린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다.

(문의: ijs@snu.ac.kr, 02)880-8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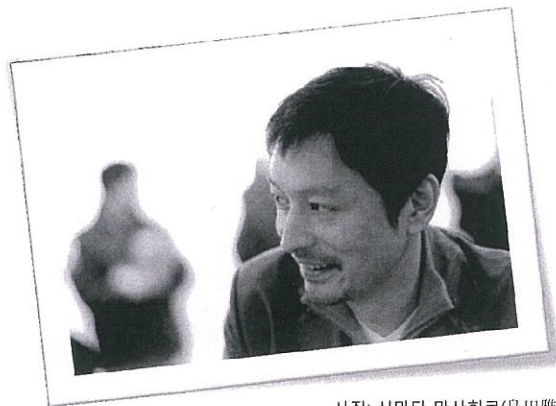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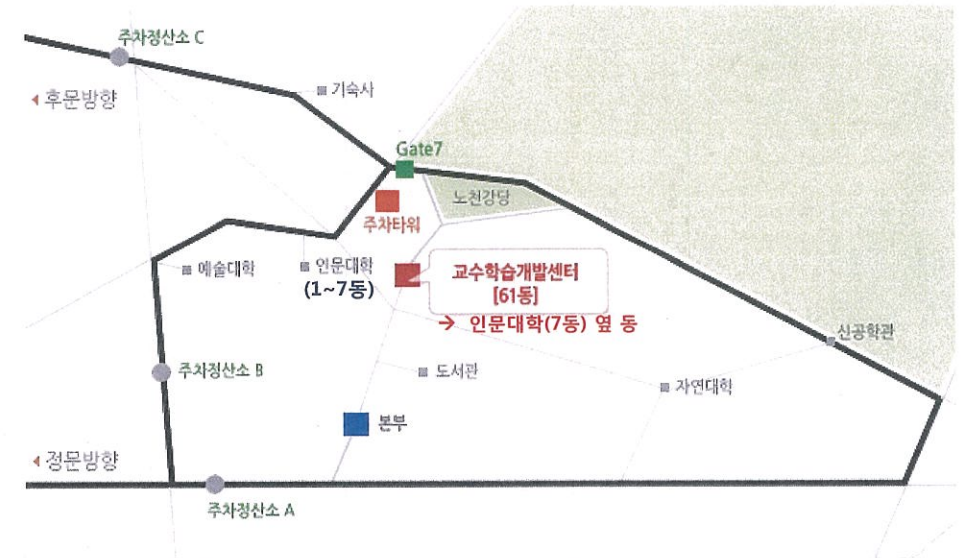


사진: 시마다 마사히코(島田雅彦)



오시는 방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 낙성대역에서 하차하신 후 4번 출구를 통해 나와주세요.
- 출구에서 나온 후 10M전방의 GS주유소에서 좌회전 후 제과점 앞 정류장에서 02번 마을버스를 타세요.
- 노천강당(사범대학) 정류소에서 내리신 후 본부(정문)방향으로 걸어오시면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방법

- 정문으로 들어오신 후 곧바로 좌회전을 하셔서 주차정산소B로 진입합니다.
- 직진하시면서 기숙사 삼거리로 지나면 오른쪽에 7번게이트가 있습니다. 7번게이트(Gate 7)를 통해 안쪽으로 진입하세요.
- 마을버스 정류장을 지나 우회전하시면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주차 후 본부(정문)방향으로 걸어오시면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